

귀신으로서의 아이가 지닌 표상성 연구

— 『천예록』 소재 두역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

정경민*

<차 례>

1. 서론
2. 두역신의 형상화 양상과 설화의 서사적 특징
 - 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
 - 2.2. 소통 부재에 따른 필연적 파멸
3. 아이 귀신의 서사적 효과와 의미
 - 3.1. 비인격적 귀신에 대한 근원적 공포
 - 3.2. 도덕성 결여로 인한 사회적 재앙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천예록』 소재 두역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내아이 역신에 주목하였다. 대개 설화에서 아이는 의외의 문제해결력을 지닌 존재이거나 부모 혹은 어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내아이로 등장하는 두역신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역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아이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게다가 초라한 아이의 형상은 양반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와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비도덕성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게 만들었다. 소년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폭력 증폭 과정은 역설적으로 괴이한 힘을 가진 귀신으로서의 정체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뒤늦게 용서받지 못하여 집단 구성원 모두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교수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갈등의 원인은 사람들과 아이의 소통 부재였는데, 이는 비인격적 귀신이라는 두역신의 속성 자체에 이미 내재된 것이었다. 소통할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는 두역신의 면모는 사람들의 근원적 공포심을 자극하면서도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드러내게 하였고, 이는 전염병이라는 인과응보적 결말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두역신 이야기는 질병을 인간의 도리와 도덕성의 결과로 이해하는 당대의 인식체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 두역신, 역신 설화, 아이 귀신, 천예록의 귀신관, 인과응보로서의 질병

1. 서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성, 유통, 전승, 소멸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특히 주목받거나 선호되는 이야기 혹은 이야기 장르 또한 변화했다. 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온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아마도 그중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각종 괴담을 필두로 다양한 공포 서사가 여러 문화콘텐츠로 창작되며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이야기’에는 대개 ‘귀신’이 등장한다.

귀신과 귀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성리학이 확립되고 강화되었던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귀신에 대한 상상과 귀신 이야기는 민간의 무속신앙과 다양한 구전설화로 전승되었다.

귀신담은 여러 문헌설화집에도 기록되었는데, 그중 『천예록』은 귀신담을 포함한 기이담을 대거 수록하고 있어 매우 독특한 야담집으로 평가된다.¹⁾ 『천예록』에 실린 이야기들 중 비현실적 존재가 등장하는 기이담은

1) 『천예록』이 독특한 야담집으로 평가받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신선, 귀신, 요괴, 이인 등 비일상적인 존재의 사적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 점, 둘째,

전체 62화 중 47화이고, 이중 귀신 관련 이야기는 39화에 이른다.²⁾ 조선 전기 필기담에 비해 귀신담이 훨씬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17세기 초에 엮어진 『어우야담』에 수록된 전체 558화 중 41화가 귀신담³⁾인 것과 비교해 보면 『천예록』의 두드러진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⁴⁾ 여러 귀신 이야기가 실린 만큼 다양한 귀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천예록』 수록 귀신담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설화는 ‘두역신’이라 불리는 사내아이 역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설화에서 아이가 주인공 혹은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이야기에서 아이로 인식되는 인물의 대략적 범주를 설정

이 이야기들은 작가 임방이 수집, 정리한 것인데 임방은 사대부로서 우암 송시열의 제자이자 당시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같은 『천예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강욱, 이승은, 정환국, 차남희 등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이강욱, 『천예록의 야담사적 연구-서술방식과 서사의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화연구』 14, 한국구비문화학회, 2002; 이승은, 『『천예록』에 나타나는 신격의 변화와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68, 민족문화사학회, 2018; 정환국, 『『교감역주 천예록』에 대하여』,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3~31쪽; 차남희, 『16·17세기 주자학적 귀신관과 『천예록』의 귀신관:정통과 이단』, 『한국정치학회보』 40, 한국정치학회, 2006.)

- 2) 차남희는 “천예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39개의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주자학적인 설명에 합치되는 이야기는 2개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무속적 귀신관이나 불교적 사생관, 사후관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라고 하였다. (차남희, 『16·17세기 주자학적 귀신관과 『천예록』의 귀신관:정통과 이단』, 『한국정치학회보』 40, 한국정치학회, 2006, 22쪽.) 이는 작자 임방이 사대부이기는 하지만 성리학적인 사고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만을 선택적으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이담을 고르게 수록하고, 평론을 통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음을 보여준다.
- 3)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참고.
- 4) 18·19세기의 야담집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천예록』에 귀신담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지 알 수 있다. 『청구야담』에는 183편 중 6편에 귀신이 등장하고, 『기문총화』에는 637편 중 12편에만 귀신이 등장한다고 한다. - 최기숙, 『치녀귀신』, 문학동네, 2010, 21~23쪽 참고.

해 보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어른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미혼의, 십 여세까지의 인물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⁶⁾ 대체로 이야기 속에서 아이는 의외의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⁷⁾하거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인물로 등장⁸⁾한다. 또 때로는 원

-
- 5) ‘어린이’나 ‘아동’ 등은 흔히 근대적 개념을 담지한 용어로 통용된다. 그래서인지 구전 설화의 구연자들도 ‘아이’ 또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어린이’나 ‘아동’의 단어는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설화에 아이가 등장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나이가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설화 속 인물 간의 관계양상 등을 살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허원기는 이에 대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제목에 사용된 아이 관련 용어를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아이’라는 말은 138건, ‘어린이’이라는 말은 46건, ‘꼬마’라는 말은 23건, ‘동자’라는 말은 34건, ‘아기’라는 말은 66건, ‘도령’이라는 말은 23건 수록되었다. - 허원기, 『한국 설화의 어린이 형상』, 『동화와 번역』 17,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9, 425쪽 각주 5 참고.
- 6) 허원기는 한국 설화의 어린이 형상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우월한 어린이/심각한 고난을 겪는 어린이/죽임을 당하는 어린이가 그 세 가지 유형이다. 허원기(2009), 위 논문, 423~448쪽 참고.
- 7) 강진옥은 ‘아이의 지혜담’에 등장하는 ‘아이’의 의미에 대해 “‘아이’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의 년소, 사회적 경험의 부족이나 무지의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일상적이고 고정된 지식에 집착하고 있는 인물들(어른)에 대해서 본래적인 자기를 얻은 인물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를 체득한 인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강진옥, 『설화에 나타난 진리인식: 『거울을 보고 놀란 사람들』 형과 『아이의 지혜』 형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 1983, 114~116쪽.) 한편 최기숙은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어린이에 대한 과부하된 기대의 투영을 보게 된다”면서, 지혜로운 아이 이야기 속 “서사적 어린이는 실재하는 어린이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어른들과 서사적 어른을 동시에 위압한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서사적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은 어린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과시하는 데 바쳐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의 무능과 타락, 그 모순을 조명하는 기능을 하도록 도모된다.”고 지적하였다. (최기숙, 『구전설화에 나타난 ‘어린이’의 세계-어린이 지혜담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3, 열상고전연구회, 2000, 210~212쪽.)
- 8) 아이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되는 ‘인신공희설화’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희생되는 아이는 희생물(자) 중 하나의 예로 다루어지거나 효행설화의 범주에서 개인을 위해 희생되는 아이로 주목되었다. 희생효설화에서의 아이 희생의 원리와 의미에 대해서

수를 갖기 위해 적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⁹⁾기도 한다. 지혜담에서의 아이가 경직되고 무능한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문제해결력을 표상한다면, 희생되는 아이는 어른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혹은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버림받거나 죽음에 이르는 희생물이라 할 수 있다. 또 원수의 자식으로 환생한 아이는 전생의 연속적 존재로서 아이의 신체만을 지닐 뿐 온전한 아이로서의 독립된 인격체라 할 수 없다. 이렇듯 이야기 속 아이는 대체로 기성세대나 부모, 전생의 원수 등 누군가와 의 관계를 기반으로 서사적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두역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내아이는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파괴적인 힘을 가진 역신이다. 이는 여타 설화에 등장하는 아이의 인물형과도 다르거나와 전염병을 퍼뜨리는 설화 속 다른 역신들 과도 거리가 있다. 본고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역신을 표현하는 데 왜 아이가 채택되었을까 하는 소박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아이 귀신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피고, 이 형상화 방식이 서사적 특징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 귀신으로서의 아이가 지

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호립,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43, 우리문학연구회, 2014, 159~190쪽;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175~203쪽; 정경민, 『자녀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12, 5~42쪽.

- 9) 원수를 갚기 위해 적대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변신설화’에 대한 연구에서 하위유형으로 다루어지거나 부모-자식 관계를 초점에 둔 연구 등으로 진행되었다. 변신설화의 큰 틀에서 논의한 연구는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 그 의미』, 『진단학보』 73, 1992, 165~185쪽;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 인식 양상(2)-짐승 원귀 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8, 327~349쪽을 참고할 수 있고, 부모-자식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분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111~136쪽; 하은하,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에 나타난 부모의 태도와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58~295쪽.

니는 서사적 의미를 밝혀, 궁극적으로는 이야기 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아이 인물형을 부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2. 두억신의 형상화 양상과 설화의 서사적 특징

두억신 이야기¹⁰⁾인 『천예록』¹¹⁾ 소재 <집안 잔치에서 못된 아이가 염병을 퍼뜨리다(一門宴頑童爲癘)¹²⁾>는 어느 벼슬가 집안 잔치에 나타난 웬 사내아이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다 결국 일가친척 모두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먼저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 벼슬아치의 집안에 경사가 있어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다.
- ② 손님들이 앉아 있는 내청(內廳)의 주렴 밖에 웬 험상궂은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 ③ 사람들은 누군가의 하인이겠거니 하여 신경쓰지 않았다.
- ④ 한 여자 손님이 여종을 시켜 꾸짖어 쫓아내도록 했으나 사내아이는 꼼짝

10) ‘두억신(頭抑神)’은 두억시니, 두억신(斗億神), 두옥신(斗玉神)이라고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라고 풀이되어있다. 정환국이 설명했듯이, 두억신은 민간 전설에만 등장하는 사나운 귀신 중 한 가지인데, 조재삼의 『송남잡지』에 짙막한 기록이 전한다. 『송남잡지』의 표제어는 ‘두억시니 斗億神’인데, ‘두억(斗億)은 안당(安塘-조선 전기의 문신(1461-1521).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 대사간·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지냈으나, 중종16년(1521) 신사무옥 때에 처형되었다.)의 노비 이름인데, 원통하게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두억신 설화는 『천예록』에만 수록되어 있다. 임방, 정환국 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65쪽, 각주1 참고; 조재삼, 강민구 역, 『교감국역 송남잡지』 9, 소명출판, 2008, 152쪽.

11) 본고에서는 정환국의 교감본(임방, 정환국 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을 자료로 삼았다.

12)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문에서 두억신은 ‘童’으로 표기된다.

하지 않았다.

- ⑤ 사람들이 그제야 관심을 가지고 누군지 물었으나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 ⑥ 여자 손님들이 모두 화를 내며 몇 사람을 시켜 강제로 끌어내려 했으나 아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 ⑦ 건장한 하인들을 동원했으나 끌어내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나서 장정 수십 명을 동원해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 ⑧ ‘저 놈 역시 사람일 뿐이다.’라며 무사들을 시켜 큰 몽둥이로 두들겨 뺐으나 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 ⑨ 사람들은 급기야 겁을 내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애원하였다.
- ⑩ 한참 뒤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문을 나가 사라졌다.
- ⑪ 다음날부터 잔칫집 참석자들에게 염병이 돌더니 아이를 때리고 욕한 자들부터 머리가 찢어져 죽었고, 결국 모두 죽임을 당했다.
- ⑫ 세상에 전하기를 이 아이를 ‘두억신(頭抑神)’이라 부른다.

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

한 벼슬아치 집안에 경사가 있어 잔치를 크게 벌였다. 일문(一門)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하여, 내외의 친척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손님들이 앉아 있는 내청(內廳)의 주렴 밖으로 별안간 머리를 흐트러뜨린 웬 험상궂은 사내아이가 나타나 우두커니 섰다. 생김새가 매우 흉악하였는데, 나이는 열대여섯 정도 돼 보였다. 주인과 손님들은 서로 이 아이가 누구 집 하인이겠거니 하면서 묻지도 않았다.

한 벼슬아치의 집에 경사가 있어 큰 잔치를 벌이고,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홀연히 “머리를 흐트러뜨린 웬 험상궂은 사내아이”가 나타났는데 “생김새가 매우 흉악”하고, “나이는 열대여섯 정도”로 보였다. 사내아이는 여자 손님들이 모여 있는 내청 앞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고

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누구 집 하인으로 따라온 아이겠거니 했기 때문이다. 쉽게 종이로 여겼다는 것을 보면 아이의 행색이 누추하고 초라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이는 어리고 행색이 초라하며 머리까지 흐트러져 있는 외양을 보고 사람들이 종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이가 신분적으로 미천한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다. 여러 사람이 서로 누구네 종인지 물었으나 주인과 손님 중 아무도 그를 아는 자가 없자 아이는 이제 종이 아니라면 고아거나 혈벗은 걸인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 말하자면 사내아이는 소외된 주변인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벼슬아치의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임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한 여자 손님이 그가 내실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계집종을 시켜서 꾸짖어 쫓아내도록 하였다. <중략> 이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손님이 ‘저놈 역시 사람일 뿐이다. 어찌 움직이지 않을 리 있겠느냐며 다시 힘이 장사인 무사대여섯 명을 시켜서 큰 몽둥이로 두들겨 패라고 하였다. 이들이 있는 힘껏 내리치니 형세는 계란을 깨뜨리는 듯 소리는 벼락이 치는 듯하였는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머리털 한 올도 뽑히거나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온 사내아이는 특별히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불편하면서도 불쾌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일가 중 한 여자 손님이 계집종을 시켜 쫓아내도록 하는 것으로 침입자에 대한 축출을 시작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잘못 찾은 아이를 꾸짖어 쫓으려는 시도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버티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점차 심화된다. 아이의 무반응과 무대응이 사람들에게는 불경한 저항으로 보이고, 이에 사람들은 이제 소년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는 데 몰두하게 된다.

말로 해서 통하지 않자 점점 여러 하인을 동원하여 힘으로 잡아끌기도 하고, 그것 역시 통하지 않자 장정 수십 명을 데려와 밧줄로 묶어 당기게 한다. 이마저도 실패하자 무사들에게 몽둥이 매질을 시켰는데, “형세가 계란을 깨뜨리는 듯”하고 “소리는 벼락이 치는 듯”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정도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이를 축출하려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점차 아이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으로 변하면서 아이에 대한 폭력적 공격은 점차 그 강도가 심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의 증폭 과정은 소년에 대한 제압으로 자신들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괴이한 힘을 가진 귀신으로서의 정체를 감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나이가 어리고 신분적으로 미천해 보이는 두역신의 행색은 지체 높은 양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무시와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하였다. 반복되는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자 폭력적 공격은 점차 심해졌는데, 두역신은 쉽게 제압되지 않는 자신의 괴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이 괴이한 존재임을 드러냈다.

2.2. 소통의 부재에 따른 필연적 파멸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아이의 존재를 감지한 이후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이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요구에도 호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야기 전체를 통해 아이는 전혀 발화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이러한 아이의 대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 질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며 기어코 그 기세를 꺾겠다는 오기를 부리도록 자극하고 유도한다. 사람들의 발화와 아이의 대응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발화 내용	아이의 대응
1	여자 손님의 명으로 계집종이 재차 야단을 칩.	대꾸하지 않음.
2	사람들이 누구네 종이나며 서로 묻고 아이에게 다시 정체를 물음.	대답하지 않음.
3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냄.	꼼짝하지 않음.
4	결국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함.	반응하지 않음.
5	사람이 아님을 알고 기도하며 애원함.	한참 뒤 빙그레 웃고 집을 나감.

사람들의 거듭된 질문과 호통에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아이는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애원하자 한참 뒤에 서야 빙그레 웃고는 집을 떠난다. 표면적으로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체를 밝히지 않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아이의 태도에서 갈등이 촉발되고 점점 상황은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질문하고, 요구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아이의 대답을 구한다기보다 일방적 명령을 하고 있었다. 계집종은 “너는 누구 집 하인이기에 감히 내실과 그렇게 가까운 데에 서 있단 말이냐? 내당에서 즉시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도 너는 감히 나가지 않는단 말이냐?”라고 야단쳤고, 사람들은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고 불손한 태도에 화를 냈으며, “저놈 역시 사람일 뿐이다. 어찌 움직이지 않을 리 있겠느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는 누구냐”와 “나가라”인데 이는 상대의 정체 확인보다는 축출에 발화의 목적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진심으로 상대가 궁금해서 시작된 질문이 아니며 ‘네가 뭔데 이 자리에 와서 잔치를 더럽히느냐’는 질책에 가깝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대화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일방적 수용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통의 실패는 대답하지 않는 아이에게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만을 거듭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짜증은 그가 “내실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이 모여 있는 내실 가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종의 경계를 넘은 행위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집 하인으로 따라온 종놈이 내청 주렴 앞에 자리잡고 서있는 것은 위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따라서 그냥 눈감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청에 있는 여자 손님들의 명에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아이의 존재는 외청으로 알려지고, 이내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주목하게 된다. 일가 사람들의 아이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에서 거슬림과 불쾌로, 그리고 분노로 격화되는데, 이에 따라 아이에 대한 공격 행위자도 여성 손님에서 여종으로, 여종에서 하인, 장정을 거쳐 무사료까지 확대된다.

결국 흥겨운 잔치를 만끽하던 벼슬아치 집안의 일가친척들과 그들의 수하인들은 모두 아이를 쫓는 데만 몰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는 불가해한, 소통 불가의 괴물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난다.

여자 손님들은 모두 화를 내며 강제로 끌어내라고 하였다. 몇 사람이 끌어내려 했으나, 마치 하루살이가 돌에 부딪치는 격이었다. 좌중은 화가 치밀어 외청(外廳)에 이야기하여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였다. 외청에 있던 손님들이 이 소리를 듣고 건장한 하인 몇 명을 시켜 붙잡아 끌어내게 하였다. 그러나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략> 의아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여 이번에는 장정 수십 명을 동원, 굵은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역시 태산을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옮길 수 없었다. 이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장정 수십 명을 동원하여 밧줄로 묶고 끌었으나 “태산을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옮길 수 없었다”면 의아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낀 것만한데도 사람들은 무사들까지 불러가며 매질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혹독한 매질에도 아이를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그가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 사람들이 아이를 낫선, 괴이한 존재로 지각하기까지의 과정은 결국 자신들의 무지와 폭력성을 모두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이미 기도와 애원으로 돌이킬 수 없었으며 결국 일가는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3. 아이 귀신의 서사적 효과와 의미

3.1. 비인격적 귀신에 대한 근원적 공포

귀신¹³⁾은 인간과는 다른 이질적 존재이자 비일상적 존재라 할 수 있다.

- 13) ‘귀신’에 대한 용어 개념과 하위유형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 논의가 있었다. ‘귀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성격 구명과 섬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성격이 다른 존재들에 대한 분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참고하자면 안병국은 우리 민간신앙에서 귀신은 크게 두 가지를 지칭한다고 전제하고, 첫째, 일반적인 신에 대한 총칭, 둘째, 낮은 유(類)의 사귀(邪鬼)를 특별히 한정하여 일컫는 경우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는 조상신이나, 천신·산신·지신 등 선신(善神)이 속하고, 후자의 경우는 잡귀·악귀 등 인간을 가해하는 악신(惡神)들이 속한다.(안병국,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1995, 37쪽) 또, 김정숙은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인간이 죽어서 된 사령(死靈)을 의미하지만 맥락에 따라 인간 이외의 존재가 인간 혹은 인간 이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요괴’를 포함하기도 하는 등 그 함의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둘을 구분하여 ‘귀신’은 인간 사후의 존재를, ‘요괴’는 비인간적 존재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귀신’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지만 ‘요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김정숙, 『조선시대 필기·야담집 속 귀신·요괴담의 변화 양상-귀신·요괴 형상의 변화와 관심축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559쪽, 각주 4) 한편 강상순은 귀신이라는 용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디쯤 존재하면서 죽음을 경험하고도 산 자들의 삶에 간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경계적 존재이면서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 떠다니는, 부유하는 존재이다. 한편 귀신은 본질적으로 인식하는 자, 경험한 자, 믿는 자에게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인간에 의해 감지되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속적 존재이기도 하다.

흔히 한국 귀신담의 특징으로 원귀형 귀신이 많다는 점이 언급된다. 억울하게 죽었기에 한을 풀기 전에 저승에 가지 못하는 원귀는 해원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다. 해원 과정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과 산 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 상황이 해결된다. 그리고 주로 처녀 귀신으로 대표되는 여성형 귀신이 많다는 점 또한 한국 귀신담의 특징으로 지적되는데, 이때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표상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인간의 삶을 살다가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과 원통함, 염원으로 인해 귀신이 된 존재들은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귀신 이야기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귀신이 어느 시점 연민과 공감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같은 그들의 스토리 때문이다.

그런데 두역신의 경우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이후에 귀신이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으로서의 출몰이나 영향력에 대한 사연이 제시되지 않

어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신이하고 기괴한 것으로 여긴 초자연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하였다. 여기에는 위인의 신령이나 조상의 혼령, 원귀나 여귀, 도깨비 등이 포함되지만, 이인(異人)이나 도사(道士), 신승(神僧)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분하였다. (강상순, 『귀신과 괴물』, 소명출판, 2017, 38쪽, 각주 1)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거하면 두역신은 ‘악신’, ‘요괴’, ‘귀신(여귀)’이라 호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귀신의 세부 유형 자체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는다. 또 발화하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취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무엇이 그를 그 자리로 불러들였으며, 어떻게 해야 그를 온당하게 대접해 탈 없이 돌려보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의 성격을 그대로 담지한 인격화된 귀신이 아니라 비인격적 귀신인 썸이다.

사람들은 급기야 놀랍고 두려워 겁이 덜컥 났다. 그가 어찌면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모두들 뜰로 내려와 그 앞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애원하였다. 한참 뒤에야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문을 나갔다.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자취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놀란데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들 갔다. 다음날부터 주인과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집에서 염병이 급속하게 돌기 시작했다. 꾸짖고 욕했던 자와 끌어내리려 한 자, 때린 무사, 그리고 손을 댄 하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앓아 먼저 죽음을 당했는데, 이들의 머리는 모두 찢어진 채였다. 이렇게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겁을 내어 빌자 아이가 한참 후 빙그레 웃고는 문 밖에 나갔는데, 나가자 사라졌다고 한다. 자신에게 모두 굴복하고 애원하자 섬뜩한 미소를 보이는 두역신의 면모는 그에 대한 공포심을 배가시킨다. 사람들은 무섭고 불안하여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부터 전염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었다. 결국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아이의 정체가 드러난 썸이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이는 사람들이 모두 죽음으로써 역신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두역신은 이해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귀신이다. 소통의 여지가 없고, 자신의 스토리가 없기에 타협이나 설득, 거래의 여지 역시 없다. 이는 여타 전염병과 관련된 귀신들과는 다른 면모라고 하겠다. 인간

으로 살다가 죽음 이후 역신이 된 귀신, 특히 아이들이 희생되는 두창 귀신(마마귀신)의 경우 대부분 산 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왜 아이들에게 병을 전염시켰는지 설명한다. 또, 아이(들)의 희생을 막으려는 자(선비, 혹은 옛 친구 등)의 설득과 노력, 정성에 감복하면 병을 거두어 아이를 살려준다.¹⁴⁾ 이는 ‘달래기’가 가능한 인격적 귀신이기에 가능한 일종의 협상이다. 이러한 설화들에서 어린아이는 전염병의 희생자 혹은 전염병에 걸려 위태로운 존재로 등장하는 것에 비해 두역신 설화의 경우 질병을 퍼뜨리는 귀신이 아이로 설정되고 질병의 희생자가 대부분 기성세대라는 점도 대비된다. 마마귀신들은 대부분 백발노인이나 중년의 선비 등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들은 전생에서의 축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사리를 분별한다. 또 비록 죽은 후 마마귀신이 되어 병을 퍼뜨리고 다니지만 자신이 죽기 전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인간과 이질적인 면보다는 여전히 동질적인 측면을 많이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역신설화에서는 전염병 자체는 두렵지만 전염병을 옮기고 관장하는 귀신에 대한 공포는 약화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두역신과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겠다.

결국 두역신은 그 집에 있던 모두를 몰살했다. 사람들은 낮선 아이와 소통이 되지 않자 폭력의 수위를 점점 높였고, 아이는 자신을 향한 폭력적 공격에 끄떡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사람들

14) 이같은 이야기들은 여러 편의 설화로 전승된다. 먼저 『천예록』의 경우 마마귀신을 달래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가 두 편 수록되어 있다. <찬을 내오게 하여 먹고 어린아이를 살리다>와 <제문을 지어 하늘에 고하여 마을을 구하다>가 그것이다.(임방, 정환국 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21~228쪽.) <죽은 아이를 살리게 한 이씨(勸痘神李生種德)>도 유사한 내용으로, 『청구야담』, 『해동야서』, 『동야휘집』에 실려 있다.

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의 정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지하듯이 16·17세기는 양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황폐화된 데다가 천재지변이 속출하는 시기였다.¹⁵⁾ 특히 재해와 기근은 1651-1700년에 그 정도가 가장 심했다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기근들이 이 무렵 연달아 발생했다. 그리고 대기근은 필연적으로 전염병의 창궐을 불러왔다.¹⁶⁾ 『천예록』의 귀신담을 포함한 기이담은 이같은 시대적 혼란, 현실적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들을 환상적 서사로 풀어냈다고 볼 수 있다.¹⁷⁾ 그중 갑자기 창궐한 전염병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대책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두창(마마)의 경우 여전히 두려운 전염병이기는 하나 간혹 전염되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을 경험했을 것¹⁸⁾이고, 이같은 예외적인 사례들은 두창 귀신을 인격화된 귀신으로 설

15) 차남희는 이에 대해 “조선사회의 16-17세기는 소빙기의 한랭화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이 지속되어 천재지변이 속출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해 천체의 이변 현상이 빈발하고, 우박, 서리, 때 아닌 눈, 지진 등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전염병이 창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차남희(2006), 위의 논문, 5~6쪽.

16) 이승은, 『『천예록』 소재 기이담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207쪽.

17) 이강옥은 “『천예록』은 기이에서 현실적 혹은 윤리적 의미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기인한 이야기에 대한 『천예록』의 이같은 긍정적 의미부여는 그보다 뒤에 편찬된 『학산한언』이나 『동야취집』에 영향을 주었다.”고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한 바 있다.-이강옥, 『천예록의 야담사적 연구-서술방식과 서사의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243쪽.

18) 『두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이미 《삼국사기》에 신라 선덕왕이 질진(疾疹)에 걸려 흉(薨)한 것이라 하고, 문성왕 역시 질진에 전염되어 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질진이란 두창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 고려 때 만들어진 《향약구급방 鄉藥救急方》 하권 소아잡방(小兒雜方) 중에 “소아원두창(豌豆瘡)이 발생하려 하거나 이미 발생하여 숨어 있는 것은 모두 마땅히 빨리

정하여 이야기 안에서 상황에 따라 환자를 살려주는 서사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역신이 지나간 양반집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들의 머리는 모두 찢어진 채”였다고 하였다. 이같은 처참한 죽음의 양상은 사람들의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두역신은 이해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두려운 존재를 표상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3.2. 도덕성 결여로 인한 사회적 재앙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야기는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압축적 서사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에 표현된 문학적 상상은 현실을 기반으로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신과 질병에 대한 상상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역신 이야기를 수록하며 저자 임방이 어떤 논평을 남겼는지 살피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

한 집안이 망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재앙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가의 모임에 큰 염병을 퍼뜨리는 아이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알아차려서 공경하는 척하면서 멀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꾸짖어 끌어내고 때리기까지 하여 그의 노여움을 부채질했으니, 염병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과 귀신이 어지럽게 뒤섞이는 경우는 태평한 시절의 일은 못된다.¹⁹⁾

치료하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조선 중기 이후 두창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여전히 무서운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경험적으로 익숙한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한다.

19) 『천예록』은 유사한 두 편의 이야기를 묶어 하나의 논평을 제시하였다. 두역신 이야기와 함께 제시된 이야기는 전염병을 퍼뜨려 한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한 할미 귀신에 관한 것이다. 인용한 논평은 두역신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임방은 두역신을 문제적 존재로 규정하지만 귀신으로서의 행위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역신을 인간과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귀신으로 인정,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재앙을 불러오는 귀신을 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기민하게 알아차려서 파악하고, 공경하는 척 행동해서 피해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재앙을 입거나 피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으로, 공자가 말씀하신 ‘지혜로움’의 요건과 통하는 언술이다.²⁰⁾ 결국 중요한 것은 귀신의 출현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인데, 이같은 관점은 두역신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시각을 마련해준다. 임방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집안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인간들의 불찰이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일가의 폐족음이 사람들의 무례 혹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어리고 행색이 볼품없는, 험상궂은 사내아이를 대했던 벼슬아치 일가의 태도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경사로 인해 벌어진 벼슬아치 집안의 큰 잔치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함께 즐겨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천한 사내아이를 야박하게 나무라며 쫓아내려고만 했고, 이는 귀신의 해코지를 불러왔다. 조선이 반상의 신분적 위계가 엄격한 사회이기는 했지만 아이에 대한 일가의 태도는 소수의 사회적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희의 장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신경증적 거부반응에 가까웠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를 잠시도 같은 공간에 두지 않겠다는 일가의 태도에서 약자를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도 베풀지 않는 양반가의 도덕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인

20) 樊遲問知。子曰，“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번지가 지혜로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혜롭다 말할 수 있다.”) 『논어』 「용야(雍也)」

과성을 부여하여 비극적 상황에 대한 설명원리를 마련해준다. 다시 말해 지배층으로 대표되는 양반 일가의 인간적인 불찰, 실수, 경솔함, 탐욕, 부덕한 태도, 즉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불러왔고,²¹⁾ 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²²⁾

그런데 두역신은 사람들의 인간적 불찰을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아이라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는 하찮은 존재, 비가시적인 존재일 뿐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식될 수 없었다. 게다가 초라한 행색으로 내밀한 양반가의 내실 앞에 서서 내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불경한 모습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끌어내고, 급기야 때리기까지 할 때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과격한 폭력에 모두 가담했다는 사실은 도덕성의 결여가 개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단에 만연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모두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중 아이에게 직접 피해를 가한 사람들부터 먼저 죽음을 당했다는 대목에서 전염병은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로서의 재앙임이 분명해진다.²³⁾ 두역신은 자

21)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발병과 피해 정도는 평소 영양 등 건강상태와 위생 등 주거환경의 문제와 밀접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전근대 사회에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희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층보다는 하층민에게서 빈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본 설화에서 전염병의 발병과 전염, 그 피해의 범위가 상층의 양반가로 설정된 것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을 질책하는 설화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유추해 볼 수 있다.

22) 차남희는 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전염병을 앓거나 아니면 전란에 휩싸이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무속적 귀신 신앙에 집착하거나 불교의 극락 세계나 도가적 신선세계를 동경한다.”면서 “그 중에서 무속적 귀신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는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차남희(2006), 위의 논문, 16~18쪽 참고.

23) 수전 손택은 질병과 희생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는, 즉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질병에 대한 은유, 상징체계의 깊은 역사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11~124쪽 참고.

신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려 한 사람들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는 아이로서 지니는 원초적인 잔혹성을 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두억신은 억울하게 죽은 원귀는 아니다. 하지만 두억신 이야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상황에 대한 대리 경험을 서사화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과 배척, 공격은 어찌면 오늘날에도 횡행하는 일상적인 광경이다.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부주의함이 때로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담이라 할 수 있다. 귀신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통해 이야기는 불운한 사건을 인과응보로서의 결과로 수용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 속에서 인간의 도리와 도덕성 문제가 부각된다.²⁴⁾ 이렇게 본다면 모든 재앙이 그저 우연적 사건인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현실을 인식한다면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를 피할 수 있고, 원인을 교정한다면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도덕성의 기여로 재앙을 맞았다면 이제 이야기는 인간의 도리를 세우는 것으로 재앙과 불운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전해준다.

4. 결론

본고는 『천예록』 소재 두억신 이야기를 통해 아이로 등장하는 역신의 형상화 방식과 서사적 특징, 서사적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대개 설화에서 아이는 의외의 문제해결력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거나 부모 혹은 어른들

24) 최기숙은 “환상 세계의 성격은 인간의 행동에 도덕적 응답을 주는 것이며, 탐욕을 경계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정을 격려하는 윤리적 세계를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설화에서의 환상성이 인간적 미덕과 도덕, 윤리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이를 가치 있는 자질로 설득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기숙, 『옛이야기』의 환상적 함의와 어린이 ‘독자/청중’의 ‘환상성’에 대한 문화적 재규정, 『현대문학의 연구』 39, 현대문학연구학회, 2009, 7쪽.

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내아
이로 등장하는 두역신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역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아이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게다가 초라한 아이의 형상은 사람들의 비도덕
성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게 하였고, 이는 집단 구성원 모두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갈등의 기제
는 사람들과 아이의 소통 부재였는데, 이는 비인격화된 귀신이라는 두역
신의 속성 자체에 이미 내재된 것이었다. 소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두역신의 면모는 사람들의 근원적 공포심을 자극하면서도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드러내게 하였고, 이는 전염병이라는 인과
응보적 결말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두역신 이야기는 질병을 인간의 도리와 도덕성의 결과로 이해
하는 당대의 인식체계를 보여준다. 다양한 역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역
신 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구명하고, 아이로서의 역신의 위상을
가늠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정환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 논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자자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두창&ridx=0&tot=5>.)
- 강상순, 『귀신과 괴물』, 소명출판, 2017, 3~340쪽.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 인식 양상(2)-집승 원귀 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8, 327~349쪽.
- _____,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관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 _____, 『설화에 나타난 진리인식: 「거울을 보고 놀란 사람들」형과 「아이의 지혜」형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1983, 89~118쪽.
-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야담집 속 귀신·요괴담의 변화 양상-귀신·요괴 형상의 변화와 관심축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555~577쪽.
-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11~283쪽.
- 신호림,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43, 우리문학연구회, 2014, 159~190쪽.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를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175~203쪽.
- 안병국,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1995, 1~394쪽.
-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206~239쪽.
- 이강옥, 『천예록의 야담사적 연구-서술방식과 서사의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4, 한국구비문학회, 2002, 233~279쪽.
- 이승은, 『「천예록」 소재 기이담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199~229쪽.

- _____, 『『천예록』에 나타나는 신격의 변화와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68, 민족문화사학회, 2018, 159~181쪽.
- 정경민, 『자녀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5~42쪽.
- 정환국, 『『교감역주 천예록』에 대하여』,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3~31쪽.
- 조재삼, 강민구 역, 『교감국역 송남잡지』 9, 소명출판, 2008, 1~380쪽.
- 차남희, 『16-17세기 주자학적 귀신관과 『천예록』의 귀신관:정통과 이단』, 『한국정치학회보』 40, 한국정치학회, 2006, 5~25쪽.
- 최기숙, 『옛이야기의 환상적 함의와 어린이 ‘독자/청중’의 ‘환상성’에 대한 문화적 재규정』, 『현대문학의 연구』 39, 현대문학연구학회, 2009, 551~588쪽.
- _____, 『구전설화에 나타난 ‘어린이’의 세계-‘어린이 지혜담’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3, 열상고전연구회, 2000, 169~214쪽.
- _____, 『처녀귀신』, 문학동네, 2010, 6~176쪽.
-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본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111~136쪽.
- _____,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에 나타난 부모의 태도와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58~295쪽.
- 허원기, 『한국 설화의 어린이 형상』, 『동화와 번역』 17,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9, 423~449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a Child as a Ghost
— Focused on the Story of the Dueoksin in 『Chun Ye-rok』

Chung, Kyung-min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rsion of a boy appearing in the story of the Dueoksin in 『Chunyerok』. In the tale, the child is a new child in that he is a reversal with formidable destructive power, compared to a child who has unexpected problem-solving power or who is unilaterally sacrificed by parents or adults in many of the stories.

The immature and imperfect, and shabby image of children made the yangban people treat them as an object of neglect and exclusion, which made people express their immorality extremely. The process of amplifying violence by those who are trying to drive the boy out paradoxically provides an opportunity to identify himself as a ghost with a strange power. However, the ruthless violence of people was not forgiven, resulting in a serious disaster of the death of all the members of the group.

The cause of the conflict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was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the child, which was already inherent in the property of Dueoksin of impersonal ghost. The aspect of Dueoksin that can not be communicated and can not be understood stimulated the fundamental fear of people, but eventually revealed ruthless violence against the socially weak, which resulted in the causal ending of infectious disease. As such, the story of the Dueoksin shows the recognition system of the time to understand disease as a result of human morality.

Key Words the Dueoksin in 『Chunyerok』, the god of contagion, a child as a ghost, the contagion as retributive justice

논문투고일 : 2019.10.15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